

# 5·18 민주광장 분수대 '음악분수'로 바뀐다

### 광주 동구, 40억 투입...지난 6월 40억 들인 '빛의 분수대' 이어 이중 투자 논란도

1980년 5월 광주시민과 애환을 함께했던 5·18민주광장 분수대가 음악 소리에 맞춰 물줄기를 뿜어 내는 '음악분수'로 거듭난다.

다만 불과 지난 6월까지 40억원을 투자해 미디어아트 '빛의 분수대'를 조성했는데도 추가로 40억원을 쏟아부어 분수대 경관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이중 투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동구는 이달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분수대의 노후한 노즐과 펌프를 교체하고 기계설비를 추가해 '음악분수'로 만드는 사업이다.

동구는 지난 5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달 18일 광주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전달 받았다. 사업은 이달부터 7개월동안 이어져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분수대는 지난 1971년 민주광장 686.75㎡ 부지에 지름 19.3m, 높이 2.32m 규모로 지어졌다.

1980년 5월 당시 시민궐기대회, 민족·민주화대성회 등이 열렸던 상징적인 장소로 5·18사적지 5-2호로 지정됐다.

앞서 분수대에서는 지난 6월까지 '문화전당 야간 경관 기반 조성사업'이 진행됐다. 분수대 물줄기에 빛을 쏘아 미디어아트를 상영할 수 있도록 조명 등을 설치해 '빛의 분수대'를 만드는 사업으로,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됐다.



'빛의 분수대'로 조성된 5·18민주광장 분수대 미디어아트 공연 장면. 빛의 분수대는 지난 26일 올해 마지막 공연을 했으며 내년 2월까지 일시 중단된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하지만 '빛의 분수대'는 주변 전광판 불빛 등으로 인해 예상외로 미디어아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등 지적을 받았다. 이에 오월 관계자 사이에서는 '빛의 분수대'가 당초 예상보다 미진해 부러부러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동구는 기획 및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할 용역 업체를 모집 중이다. 다음 달 20일까지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여러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협상을 거쳐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논의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단 사업 시행 제약 사항으로 4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5·18 사적지로서 분수대와 5·18민주광장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것 ▲분수대 내 별도의 시설물을 일체 설치하지 않을 것 ▲5·18민주광장을 사용할 때 광장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것 ▲5·18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등이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은 큰 틀만 잡아놓은 단계로, 구체적인 설계는 내년 1월 10일 용역 업체 선정·계약을 마친 뒤 윤곽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빛의 분수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별도로 기획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동구의 노력은 의미 있으나, 사적지를 개발할 때는 주변 환경과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 효과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며 "빛의 분수대'에서 설계상 미비했던 점이 보여 아쉬웠던 만큼 이번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전남 AI 확산하나

### 고흥서도 고병원성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가금농장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흥군 동강면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육용 오리 2만 6000마리를 사육중으로, 방역당국은 인근 저수지에서 머무르는 철새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을 조사중이다.

고병원성 AI가 올 들어 장흥·나주·고흥 등 전남 3개 지역 육용 오리농장에서 잇따라 발병한데다, 발병 원인으로 꼽히는 철새들의 전남 유입도 예년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방역 당국은 확산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현재 전남에서는 장흥군 부산면 육용 오리농장(16일), 나주 육용 오리농장(23일), 고흥 육용 오리농장(27일)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상태다.

전남도 등은 초동방역팀을 고흥 오리농장에 보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 조사 등 선제 방역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새끼 오리 입식을 제한하는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미 순천만과 강진만 생태공원에 서식하는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잇따라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AI 확산 조짐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영암호, 순천만, 고천암호, 강진만 등 35개 철새도래지에서 겨울철새 73종 20만6000마리가 확인됐다.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주요 축종인 오리와 조류는 지난달(3만4000마리)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16만 6000마리에 이른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美 캘리포니아 5·18 기념일 지정' 관계자 광주 5·18 묘지 참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날' 기념일을 공식 지정(광주일보 2022년 8월 2일자 6면)하는 데 기여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관계자들이 24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는 지난 24일 김형률 위원회 대표와 배석준 부대표, 이지수 사무총장, 한국 측 자문위원을 맡은 김명진 더연정지협 대표 등이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국립묘지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미국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노력해 왔으며,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8월 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법률로 제정해 선포했다.

김형률 대표는 방명록에 "영령님들의 뜻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민주화 계승을 위해 미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뜻을 기리



24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 관계자들.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

고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문구를 남겼다.

이들은 참배 후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5월 어머니집, 5·18기념재단, 5·18부상자회, 광주시를 차례로 방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학교 비정규직 파업...광주·전남 급식 차질

돌봄과 급식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 25일 파업을 시작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일부 학교에서도 급식과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상경해 서울 여의대로 등지서 열린 파업 대회에 참여했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교육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이들을 말한다. 급식 종사자·방과 후 돌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광주 4303명, 전남 8961명이다. 이 가운데 파업 당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광주 902명(20.9%), 전남 949명(10.5%)으로 잠정 파악됐다.

파업 여파로 급식에 차질을 빚은 학교는 광주는 전체 254개교 중 128개교였다. 이 중 122개교는 빵·우유·도시락 등으로 대체했으며 2개교는 급식

시간 전까지 단속수업, 4개교는 재량 휴업했다.

전남에서도 급식 운영 학교 877개교 중 134개교가 급식을 하루 중단했다. 빵·우유로 대신한 학교는 100개교, 학사일정 조정 21개교, 간편식 제공 11개교, 도시락 지참 2개교였다.

돌봄 교실도 운영 차질이 빚어졌다. 광주는 292개 교실 중 40개 교실이 운영을 멈췄고 나머지도 통합 운영됐다.

전남에선 전체 돌봄 627개 교실 중 466개 교실만 정상 운영됐다. 66개 교실은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았고 나머지 95개 교실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거나 독서 교육으로 진행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단일 기본급 체계 적용,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논의, 학교 급식실 폐암·중대산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사·도 교육청과의 교섭에서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년 신학기에도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